

제39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일시 : 2015. 10. 26(월) 14:00-15:20 / 장소 : 금강대학교 대회의실

< 참석자 : 조성환의장, 김창남의원, 최기표의원, 가인숙의원, 정명효의원, 천수승의원, 이문선(덕중)의원 이상 7명 >

< 배석자 : 박태안 이상 1명 >

< 불참석자 : 박창환의원, 남용광(진성)의원, 신동호(거성)의원, 엄성민의원 이상 4명 >

사회자 : 지금부터 제39차 금강대학교 대학평의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의원회는 재적의원 11명에 참석의원 7명으로 대학평의원회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2015학년도 2차 추경예산(안)과 2016학년도 예산(안)을 자문하고자 이렇게 본 평의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 본 회의 - 2015년 2차 추경예산(안)>

사회자 : 의장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조성환 의장 : 오늘 이 회의를 위해서 멀리서 오신 덕중스님과 바쁘신 가운데에서 참석해주신 각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인사 드립니다. 그럼 2015학년도 2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자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부서 담당자가 중요 회의 참석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이에 기획관리처장인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학년도 2차 추경예산(안) 설명)

이문선(덕중) 의원 : 예산부분의 앞페이지 집계표와 뒷 페이지 총괄표의 숫자가 다소 다릅니다. 이는 끝자리를 반올림을 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조성환 의장 : 네 알겠습니다.

이문선(덕중) 의원 : 제가 잘 몰라서 말씀드립니다. 국고보조금 감소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요?

조성환 의장 : 국고보조금은 재학생의 등록인원이 줄어들면서 해당되는 학생도 줄어들었고 또한 학생들의 형편에 따라 국가에서 0분위 10분위까지 들어오는데 이 또한 학생 총원율이 줄어들면서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이문선(덕중) 의원 : 그럼 이 부분은 학생인원 감소에 따른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가인숙 의원 : 학생 인원에는 따른 감소도 있고, 특히 학생들의 경제적 부분에 따라서 변동이 심합니다.

김창남 의원 : 어떤 해는 해당되는 학생 중에서 1분위 소득자가 많고 어떤 때는 다른 분위 소득자가 많아서 그런 차이가 납니다.

조성환 의장 :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재정분과를 열어서 사전에 검토가 된 내용입니다.

이문선(덕중) 의원 : 시설관리 보수 금액은 세월이 지나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하여 대안이 있습니까? 물론 보수에 대한 관리부분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혹시 생각하는 큰 그림이 있나요?

조성환 의장 : 원래 시스템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 유지보수 계약을 합니다. 만약 학교에서 시설을 담당하는 분들이 보수가 가능하다면 그걸로 대체하고, 필수불가결한 부분은 전문적인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용이 절감되는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이문선(덕중) 의원 : 직영식당운영 증가가 있는데 어떤 부분이 증가된 부분인가요?

가인숙 의원 : 먼저 인건비 부분을 말씀드리면 직영을 하면 반드시 조리사와 영양사는 의무 채용입니다. 계약직으로 인당 월 250만원 정도로 예산 책정하였고 그 밖에 시설투자 부분에서 식기세척기, 취반기, 순간온수기를 최소 범위내서 수리하는 것으로 초기 투자비용 늘어난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문선(덕중) 의원 : 지금은 용역계약이 아닙니까?

가인숙 의원 : 지금은 12월까지 업체와 용역계약이 되어있기에 금번 추경에서는 내년 1월과 2월분에 대하여만 예산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문선(덕중) 의원 : 고정자산에서는 관련 관리비가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매입당시에도 이런 관리비까지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조성환 의장 : 백업시스템과 항온항습기는 설립당시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후 관리를 잘하여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으나 인프라가 변경되고, 학생들의 학사 사항을 수동으로 백업받는 것이 이제는 리스크가 커져 올해 초에 예산을 반영했으나 결국 반영되지 못했고 이에 다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우리학교는 그동안 다행히 해킹을 당하지 않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으나 요즘은 기계 성능이 좋고 가격도 좋아졌습니다.

천수승 의원 : “나”의 3번에 정시모집 입시광고가 증가했고 “다”의 3번의 경우에는 홍보물 제작비가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차이인지요?

정명효 의원 : “나”의 3번은 외부에 홍보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EBS, 대성학원, 배치표 광고 등으로 초기에 실행하려 했지만 예산이 미 반영되다 다시하기로 한 것이고, 홍보물제작비는 내부적으로 모집요강, 브로셔 제작 등인데 이를 최소화하여 만드는 것으로 서로 다른 개념

입니다.

조성환 의장 : 의원님들의 고견 감사합니다. 2014년도 추경예산(안) 자문에 다른 의견이 없으신지요?

전 의원 : 다른 의견 없습니다.

<2. 본 회의 - 2016년 예산(안)>

조성환 의장 : 2015년도 2차 추경예산(안) 자문을 마치고, 2016학년도 본예산(안)을 시작하겠습니다.

(2016학년도 본예산(안) 설명)

최기표 의원 : 2차 추경이 이루어진 것이 언제인가요?

가인숙 의원 : 조금 전에 한 것이 2차 추경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최기표 의원 : 그래서 1차 추경을 기준으로 한 것이군요

이문선(덕중) 의원 : 총장 차량의 교체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요?

조성환 의장 : 정병조 총장의 차량은 에쿠스였습니다. 리스료 절감차원에서 신임총장이었던 한광수 총장이 그랜저로 바꾸면서 리스료를 감소시켰습니다.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자동차와 관련한 담당자가 예산절감차원에서 앞으로 계속 리스를 하는 것보다 구매를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여 그런 결정이 되었습니다.

가인숙 의원 : 원래는 작년에 구입하려 하였지만 예산이 잡혀있지 않아 일단 리스료를 내고 올해에 사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최기표 의원 : 3페이지 윗줄에 시간강사료가 어떻게 인상된 건가요?

가인숙 의원 : 원래는 S등급이 없었는데 2분을 책정하여 예비비까지 포함하면 약 7천만원 정도 증가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시간강사료와 출강료가 따로 되어있었지만 평가부분에서 취약점이라 출강료를 줄이고 강사료를 늘려서 잡은 것입니다.

정명효 의원 :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출강료는 A~C 등급에서 A등급이 타 지역에서 오면 55,500원의 출강료가 지급되었습니다. 기존에 강의료를 조사를 하였더니 전국의 평균값이었습니다. 국립대는 8만원선, 연세대는 97,100원 정도로 제일 높은 시간강의료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총장님께서 강의료에 대해서 결재하시면서 우수한 강사를 모집하려면 그 범주를 10만원으로 높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책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렇게 받는 분은 없습니다. 출강료가 평가지표에 반영되지 않아 출강료는 줄였지만 1만원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기표 의원 : 강의료 전체가 인상된 것은 아니고 S등급이 생기고 강의료에 교통비가 산입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김창남 의원 : 이전에는 A~C 등급 간 가격이 명확히 정해졌습니다. C등급은 42,000원 B등급은 45,000원, A등급은 50,000원이었습니다. 우수 강사를 유치하기 위하여 상향조정된 것입니다.

정명효 의원 : A~C 등급에서 출강료에 문제가 생겨 각 등급을 2등급으로 다시 나누어 6등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기표 의원 : 예산편성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입생 총원율이 얼마나 나오는 것이냐가 중요한 변수인데 12월 정도되면 대충 그 총원율이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는 상황인데 예산짜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런 예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조성환 의장 : 만약에 지금 예산보다 더 많은 신입생은 입학하면 나머지는 예산의 여유가 생기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정명효 의원 : 제가 볼 때는 학교는 학년도 기준. 본산은 연도 기준이라 맞추기가 힘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문선(덕중) 의원 : 산학협력단 전입금이 작년에도 줄어들었는데 학교 수입보조부분에서 산단 활동부분도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요?

조성환 의장 : 산학협력단 간접비가 1년 예산이 약 8억이면 10%정도였던 것이 대폭 줄었습니다. 기존에는 15%까지 받았는데 아마 지금은 5%정도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인숙 의원 : 산학협력단에서 가지고 있던 자금을 학교에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그 부분이 감소한 것으로 봐야합니다. 예를 들면 인건비 같은 경우 예전에 산학협력단 직원을 뽑아서 학교에게 자금을 지원했는데 지금은 그런 직원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감소된 것입니다. 산학협력단 수입과는 관계없이 학교로 지원해주는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기표 의원 : 식당 직영하면 수입이 약 8억 정도가 늘어나고 지출은 7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1억원 정도가 남는다고 봐야하는 건가요?

가인숙 의원 : 아닙니다. 식당수입이 7억이 되면 지출도 7억이 되는 것으로 수입지출 대차를 상호 맞추었고, 2차 추경은 초기 투자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문선(덕중) 의원 : 추가적인 사업이 전무한 상황인데 수익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방법을 학교측에서 고민하고 있는지요? 어떤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지요?

조성환 의장 : 첫 번째는 평가의 가장 큰 이슈인 예산을 사업성 예산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금액은 똑같지만 만약 학생들의 컴퓨터를 산다면 이를 학생들의 역량을 위한 프로그램 구입 등으로 변경하려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예산(안)과 추후 사업성 예산과 매칭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외부에 교육부 및 각 정부기관에서 지원비를 받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18개 정도의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국제통상과 취업 쪽에 2개 정도를 준비하여 지원할 경우 그 돈이 수주되면 다시 학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적긴 하지만 저희가 지금 대학발전기금을 1년에 6천만원 정도 받고 있는데 교직원들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한 신도께서 10억도 기부한 적도 있어 그런 쪽으로 수입을 늘리려 합니다.

이문선(덕중) 의원 : 학교에 동창모임도 있나요?

조성환 의장 : 학교 법인처장님이 직접 나서서 진행된 사항입니다. 중국어과 김호중 학생과 강가희 학생 등 3명 주축이 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창남 의원 : 현재 학교에서 관련 사무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문선(덕중) 의원 : 대학원 운영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현재 상황에서는 논산까지 들어와서 대학원을 들어오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현재 금강불교대학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인데 같이 연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기표 의원 : 현재 대학원에서는 석사과정 70% 박사과정 50%의 장학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워낙 대학원생이 적어서 등록금 수입이 미미합니다. 다른 학교처럼 100명 이상이면 좋겠지만 위치상 어려운 상황이지만 교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의장 : 그럼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2016학년도 본예산(안) 자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부탁드립니다.

전 의원 : 동의합니다.

조성환 의장 : 감사합니다. 바쁜 와중에도 멀리까지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제39차 대학평의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의 폐회 선언과 함께 회의를 마치다.>